

해외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한중일 FTA 산관학공동연구 제2차회의 참석
2. 출장목적: 한중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의 참석
3. 출장지역: 일본 동경
4. 출장기간: 2010. 8. 31. - 9. 3. (3박 4일)
5. 출 장 자

부서명	직 급	성 명
글로벌협력연구본부	선임연구위원	최세균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	비 고
8. 31(화)	이동(서울-동경)	
9. 1(수)	회의 참석	
9. 2(목)	회의 참석	
9. 3.(금)	이동(동경-서울)	

II. 회의 개요 및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대응

1. 회의 개요

- FTA에서 다루게 되는 상품, 규범, 협력 분야에 대해 3국간 기본 정책, 각국의 기체결 FTA의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3국간 FTA 추진 시에 직면할 수 있는 제반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국가별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짐.

- 주요 참석자: 한국의 외교통상부 이태호 FTA정책국장, 중국의 위지앤화(YU Jianhua) 상무부 국제사장, 일본의 카가와 타케히로(KAGAWA Takehiro) 외무성 경제심의관 및 사다모리 케이수케(SADAMORI Keisuke)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국 산.관.학 대표 각각 30여명씩 참석.

2. 우리나라의 주제별 대응 내용

2.1. 식량안보

- ☐ 세계적인 기아문제의 해결 및 식량안보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, 지속가능한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
-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·정보 교환, 기술 연구·개발, 국제기구에서의 협력, 식량위기 시 대응 방안 등 공동 협력
 - 기후변화 대응 및 협력방안 모색, 특히 농지, 물, 에너지, 노동력, 환경오염과 사막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필요
- 생명산업 육성기반 구축
 - 농업의 생명산업으로의 전환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
- ☐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시 식량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
- 수출제한 조치 및 수출세 금지, 농업분야 투자제한 조치 완화 등
- 3국에서의 해외농업개발사업(재배·유통 등 여건조성) 활성화를 위한 3국 간 공조 체제 구축
- 민간주도형 해외개발 사업에 3국 정부가 기술, 정보, 제도적 측면을 지원하는 등 공동 협조 체제 구축
- * 농장 확보, 노동력 지원, 경영보장, 유통망 확보, 안정적 식량 공급 보장 등
- ☐ 3국간 식량안보 및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·추진
- 정례적 협의를 통해 3국간 협력방안 강구 및 실무 추진 지원
- 관련 공무원 파견, 전문가 간 교류·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
- ☐ 주요 곡물의 국내생산기반 확대

- 국내적으로 기본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
 - 2020년까지 150~155만ha 수준의 농지 보전('09년말 : 174만 ha)
 - 벼 재배 95 → 70~75만ha, 밭작물 85 → 80만ha 규모 유지
- 제2녹색혁명 추진(겨울철 노는 농지를 활용) 등을 통해 밀, 청보리 등 주요 식량·사료작물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
 - 매년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'12년까지 66만ha에 겨울작물 재배 추진

☐ 안정적 수입선 확보

- 안정적인 곡물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러시아·남미·동남아에 토지임차 등을 통한 해외곡물생산기지 건설 추진
- 곡물 수입선 다변화, 공동·장기구매 활용 등 구매방법 다양화 유도

☐ 적정비축물량 확보

- 공공비축제 운영을 통해 주곡인 쌀의 상시비축 규모 유지
 - 향후 3년간 공공비축 규모는 72만 톤으로 하고, 연간 매입량은 36만 톤으로 하되 연차별 감축
- 쌀 외 곡물 비축물량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용 중인 TRQ(저울관세할당물량) 품목의 상시비축량 증대 추진
-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를 위해 ASEAN+3국간의 공동 식량위기 대응체계인 동아시아 쌀 비축제 사업(APTERR)에 적극 참여

* APTERR :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

☐ 한국의 과거 식량문제 해결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데 노력

-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에 비추어 볼 때,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지원 계획은 수원국 주도의 계획 하에서 국제기구, 공여국, NGO 등 지원 주체들이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이행되어야 함

☐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농업분야 대외원조를 확대할 계획임

- 한국의 국제원조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식량긴급지원과 농업생산성·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농업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 반영
-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비상시 대비한 '비상 비축 쌀 프로그램'용 쌀 15만 톤을 비축·제공하는 등 지역 차원의 식량위기 대응력 강화에도 기

여하고자 함

- 식량안보 이슈는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로서 전지구적인 ·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며 이제는 국제 사회의 공약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해야 함
- 한국은 국제 식량위기의 근원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곡물가격 변동 원인 분석 등 국제 공동연구 제안한 바 있음

2.2. 식품안전

- 중국산 수입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3국간 식품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
-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, 안전문제 및 재발방지 조치의 신속 통보 등 식품안전체계 개선 노력
 - 우리나라 수입농식품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및 선적단계까지 위생조건을 규정하는 방안 세부적으로 협의
 - 현재 추진 중인 한중간 ‘농식품안전연례협의회’ 질적 · 양적 발전
 - * 한중농식품안전연례협의회 :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식품안전성에 대한 협력약정('07.11월 개정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연례회의('09.11월 중국에서 제5차 한중 식품안전 협력위원회 개최)
- 최근 구제역 · AI 같은 악성 가축질병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중국도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악성 가축질병 발생 ·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필요
- 악성 가축질병 공동 대처를 위한 전문가 교류와 정보 제공, 기술 공유 등 방안 모색
- 방역관계관 · 전문가 정기 교류 · 파견 및 기술 공유 등 추진
-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정보교류 채널 개설
 - 발생상황 · 동향 및 방역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례 정보교류
- 3국간 교역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· 검역분야 협력 증진
- 정보 교류를 통한 식품안전제도 이해 제고, 식품처리 현장 방문을 통한 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 등 현재 협력 체제 보완
 - 향후에도 정보교환, 기술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상호 위생조치의 조화,

표준화, 기타 과학적 분석에 대한 상호 균형 유지 위해 노력

- * 중국의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및 중국 농수산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중국 현지 검역기관(정부 또는 민간 주도) 설치도 고려 가능
- * 대일본수출 농수산물(호박, 멜론, 벚집 등 식물분야)에 대해서는 일본 검역 기관원 등이 중국현지에 거주하면서 중국 수출검역기관과 합동 검역 실시, 중국 현지에서도 일본에 수출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해 신뢰를 구축하여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마케팅 홍보로도 적극 활용 중